

- 주요 뉴스: 보안 프로그램 결함으로 글로벌 IT 장애 발생. 시장 영향은 제한적
 - ECB 정책위원들,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전망을 기반으로 추가 금리안하 지지
 - 영국, 초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활동(6월 소매판매) 둔화 관측
 - 중국 지도부, 중국 경제가 당면한 도전과 정책 시행의 어려움을 인정
 - 국제금융시장: 글로벌 IT 장애가 가세하면서 IT 업종에 대한 조정 압력이 지속
 - 주가 하락[-0.7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상승[+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IT 업종(-1.3%) 중심의 하락세를 지속
유로 Stoxx600지수는 IT 장애에 대한 우려 등으로 0.8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글로벌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으로 소폭 상승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1%, 0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은 다음주 미국 GDP 발표 등을 앞두고 상승압력이 우세
독일은 ECB 정책위원회 회의(7.18일) 이후 나타난 반등 흐름을 지속
- ※ 뉴욕 1M NDF 증가 1386.9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9.5원, 0.1% 하락). 한국 CDS 상승

		7/19일	7/18일	전일대비			7/19일	7/1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505.0	5,544.6	-0.71%	국채 금리 10y	미국	4.24%	4.20%	+4bp
	유럽	510.03	514.01	-0.77%		독일	2.47%	2.43%	+4bp
	중국	2,982.3	2,977.1	+0.17%		영국	4.12%	4.06%	+6bp
	일본	40,064	40,126	-0.16%	CDS 5y	한국	37bp	36bp	+1bp
	한국	2,795.5	2,824.4	-1.02%		중국	66bp	65bp	+1bp
환율	달러지수	104.40	104.17	+0.21%	위험 지표	EMBI+	407	406	+1bp
	유로화	1.0882	1.0897	-0.14%		VIX	16.52	15.93	3.70%
	엔화	157.48	157.37	-0.07%		WTI유	80.13	82.82	-3.25%
	위안화	7.2699	7.2621	-0.11%	원자재	구리	421.9	426.6	-1.10%
	원화	1,390.2	1,383.4	-0.49%		금	2,400.8	2,445.1	-1.8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보안 프로그램 결함으로 글로벌 IT 장애 발생. 시장 영향은 제한적

- 7.19일 오전, 클라우드스트라이크社가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인 '팔컨 센서(Falcon Sensor)'의 업데이트에서 문제가 발생.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(애저 Azure)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전세계 항공·금융·방송·의료·정부기관 등의 서비스가 중단. 클라우드스트라이크의 커츠 CEO는 깊은 사과의 입장을 표명
- 클라우드스트라이크(CRWD) 주가는 급락(-11.1%, 장중 최대 -15.4%)했으나 미국 주가(S&P500)의 낙폭은 전일 대비 둔화(-0.8% → -0.7%)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음. 다만, 'IT 장애(outage)는' 유럽(-0.8%) 및 일부 아시아(인도 -0.9% 등)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향
- 금번 IT 장애가 실물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(Capital Economics)가 우세하나 국제금융시장이 유의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라는 평가도 공존. Fitch는 IT 업체에 대한 규제 검토 강화 가능성을 제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CB 정책위원들,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전망을 기반으로 추가 금리인하 지지

- ECB가 실시한 3분기 전문가 전망 서베이(SPF)에 따르면, '24년과 '25년에 대한 인플레이션(소비자물가지수_{HICP} 기준) 전망은 각각 2.4%, 2.0%로 2분기와 같은 수준. GDP 성장률 전망은 0.7%와 1.3%로 2분기에 비해 0.2%p, 0.1%p 상향 조정
- 빌루아 드 갈로 정책위원(프랑스)은 ECB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의 예상경로*는 다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평가. 심쿠스 정책위원(리투아니아)은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추세는 뚜렷하며, 정책금리는 1년에 1%p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 * OIS 시장, 연말까지 1.8회 금리인하 기대 반영

■ 영국, 초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관측

- 영국 통계청(ONS)이 발표한 6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-1.2%로 예상(-0.6%)보다 더 크게 감소. 자동차 연료를 제외한 전 부문의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백화점과 의류 매장에서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짐. PWC는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어진 서늘하고 습한 기후가 계절상품 및 고가 제품의 매출을 둔화시킨 것으로 평가

■ 중국 지도부, 중국 경제가 당면한 도전과 정책 시행의 어려움을 인정

- Reuters는 중국 중앙위원회 관계자들을 인용해, 중국 지도부들은 금번 제20차 3중 전회(7.15~18일)를 통해 도출된 5개년 계획에는 복잡한 모순이 많이 포함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시행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
- Natixis는 정책 방향 전환 또는 구체안이 없었던 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. Capital Economics는 중국의 높은 부채 수준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일본식 저성장 국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. 다만 유럽연합 상공회의소(중국 주재)는 중국 지도부가 모순을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

■ 캐나다, 5월 소매판매 예상치 하회. 7월 금리인하 전망 강화

-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-0.8%로 식음료(-1.9%)를 중심으로 예상(-0.6%)보다 더 감소. 7.24일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는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의 73%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OIS 시장에 반영된 인하 확률은 95.6%

■ BOJ 7월 긍정위, 정책금리 동결 및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우세

- 일본 통계국이 발표한 6월 근원(신선식품 제외) CPI 상승률은 +2.6%_{yoy}로 2개월 연속으로 상승(22년 4월 이후 목표 수준_{2%} 지속 상회)했으나 예상치(+2.7%)를 하회. Reuters가 7.10~18일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, 응답자의 76%는 7.31일(금융정책결정회의) BOJ의 정책금리 동결을 예상
- 7.19일 공개된 BOJ의 제20차 '채권시장 그룹' 회의* 의사록에서는 상당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점진적인 테이퍼링 자산매입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. 다수 의견은 월별 채권매입 규모를 ¥3~4조로 줄이는 형태 * 중앙은행과 채권시장 참가자 간 회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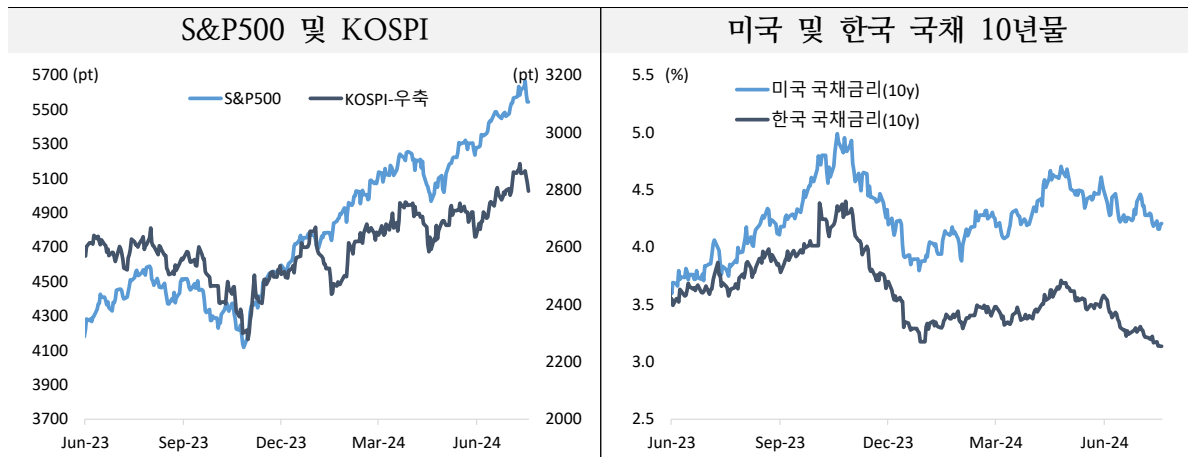
■ 인도중앙은행(RBI), 중립금리 상승에 기반한 정책 결정 일축

- 다스 총재, 중립금리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현실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언급. 전일 RBI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립 금리가 '21.4Q 0.8~1.0%에서 '24.1Q 1.4~1.9%로 높아졌다고 추정한 바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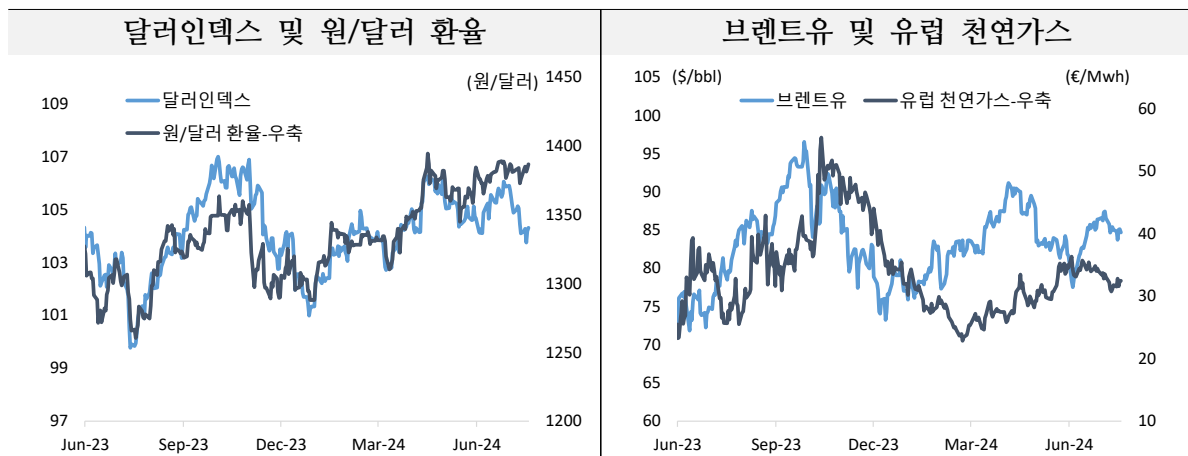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중국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 LPR 결정(Bloomberg 서베이, 1년물_{3.45%} · 5년물_{3.95%} 동결 예상), 미국 5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, 멕시코 5월 소매판매 등 발표 예정(7/22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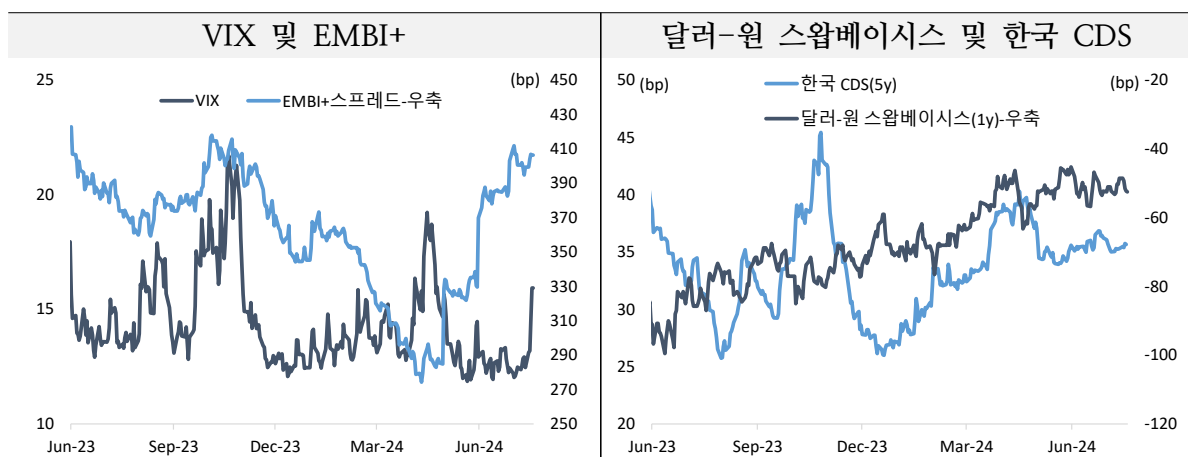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